

중국의 유교 사상에 대한 고찰

: 소프트파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명아(명지대학교)* · 김형민(명지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중국 소프트파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프트파워를 형성하는 세 가지 차원(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유교 사상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 속에서 공자로 대변되는 유교 사상은 중국의 문화적 매력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 정치, 대외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공자’를 철학적·사상적 수준에서 접근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역사 속의 유교 사상의 모습을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중국 지도부의 유교 사상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정책은 중국의 국내·외 정치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성장위주의 정책과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야기된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교 사상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국외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문화력을 높이고 공자를 통한 평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유교 사상이 중국 소프트파워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한국의 유교 사상, 소프트파워 전략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유교 사상, 공자, 철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 소프트파워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21세기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국제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오늘의 중국과 중국 문화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중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중국 교육부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세계 각 나라에 공자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해외 공자학원 1호는 2004년 우리나라에 공자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개설되었으며, 2017년 6월 현재, 중국은 총 512개의 국가에 1,073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하였다(공자학원 개설현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부록 1>, <부록 2>, <부록 3>을 참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색엔진(네이버, 다음, 구글, 바이두)을 사용하여 공자학원을 검색한 결과, 공자학원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세계에 전파할 목적을 갖는 교육기관으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유교 사상, 소프트파워에 대한 다음의 연구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정부는 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공자를 결부시켰는가? 공자로 대변되는 유교 사상은 오늘날의 중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중국의 유교 사상이 소프트파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르티그(Hartig)는 2004년에 이미 700개를 넘어선 공자학원의 수적 증가에 주목하여 공자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고 있다.¹⁾ 공자학원은 중국의 언어,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리(Li)는 공자학원의 설립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판단하였으며, 중국 정부의 관점(view)과 사고방식(concept)이 가장 잘 반영된 국제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²⁾ 중국 정부와 연계된 공자학원의 구조상의

1) Falk Hartig, "Confucius Institutes an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17, no.1, 2012, pp. 53-76.

2) Sharon X. Li, "China's International Education Initiatives and View." *Frontiers of Education in China*, vol. 7, no.1, 2012, pp. 103-123.

문제로 공자학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 기구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자의 가치와 유교 사상의 학문적 위상이 중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³⁾ 중국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하드파워(hard power)가 강해짐에 따라 등장한 ‘중국위협론(China threat)’⁴⁾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제사회는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사회 전반에서 중국 소프트파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추구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그 관심이 비교적 미미할 뿐 아니라, 크게 중국의 대외개발원조나 공자학원을 키워드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프트파워 정책인 공자학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증가하고 있는 공자학원의 현황에 기초하여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과 공자콘텐츠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⁵⁾ 중국은 국가 위상의 제고와 국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책적 방안으로 공자학원을 제시하

3) Don Starr,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Europe: the Confucius Institute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44, no. 1, 2009, pp. 65–82. Hartig, op. cit., pp. 53–76. Li, Ibid., pp. 103–123.

4)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경제규모나 성장속도, 비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대외관계에서 정치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용어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화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은 이에 대하여 ‘포용(engagement)’ 또는 ‘봉쇄(containment)’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각에서는 중국의 국내 상황과 의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군사적 역량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제63권, 2012, pp. 49–82. 이상택·윤성석, “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의 성립 조건과 군사적 함의.”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pp. 29–59.

5)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 사상연구』 제33권, 2008, p. 321–349.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0권, 2010, pp. 509–530. 이종철,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에 대한 一考察: 원조외교와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4권 제2호, 2011, pp. 121–148. 김일수·최형룡,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제73권, 2014, pp. 25–44. 최은진, “인문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중국학연구』 제72권, 2015, pp. 65–95.

였는데,⁶⁾ 공자의 유교 사상을 중국의 주류 전통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 부적으로 유학부흥운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공자학원과 같이 ‘공자’라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산업들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⁷⁾ 예를 들어, 채하연은 공자의 명성과 사상적 지위를 토대로 공자를 중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중국의 취지에 부합하는 요소로 평가하였다.⁸⁾ 같은 맥락에서 2014년 9월 24일 공자 탄생 2565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 유학연합회 제5회 회원대회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자와 유학 연구는 중국인의 민족적 특성과 정신세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경로라고 지적하였으며, 유학의 평화 사상이 오늘날의 중국이 국제관계를 인식하는 기본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⁹⁾ 이처럼 중국 소프트파워 자원인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에 공자와 유교 사상은 두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유교 사상의 핵심개념은 무엇이며,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에 유교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살펴보고,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국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에 유교 사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서구에서 조셉 나이(Joseph S. Nye)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프트파워 개념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유교 사상이 소프트파워 전략으로써 갖는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유교 사상의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부

6) 전가림, 위의 논문, pp. 509-530.

7) 채하연, 위의 논문, pp. 321-349.

8) 채하연, 위의 논문, pp. 321-349.

9) “시진핑 유학론 ‘나라 크다한들 다들 갖으면 망한다.’” 「인민일보」(한국어판 온라인) 2014년 9월 25일, <http://kr.people.com.cn/n/2014/0925/c203278-8787803.html>(검색일: 2017.05.14.).

가 이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분석한다. 시대별 분석을 통해 유교 사상이 중국인의 문화, 사상,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파워 전략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유교 사상, 소프트파워 정책이 한국의 유교 사상, 소프트파워 정책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소프트파워

1990년대 나이(Nye)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군사력으로 상대 국가를 강제로 순응시키거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여 회유하기보다는 국가의 매력적인 자원을 통해서 타국의 자발적인 순응을 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¹⁰⁾ 나이(Nye)는 타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으로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간과했던 비물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나이(Nye)는 탈냉전기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적 이슈가 중요해지고 초국가적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전통적인 군사적 해결방안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는데 소프트파워는 이러한 국가 간 평화 정책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소프트파워는 정치적 화두이자 국가들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의 대안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은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하드파워의 권력 자원이 반영될수록 배가되기 때문이다.¹¹⁾ 나이(Nye)는 또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혼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강조하는데, 이는 현실

10) 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NY: Public Affairs, 2004.

11) 이홍규, “중국의 소프트 파워 평가에 대한 시론적 연구.” 『중국학연구』 제57권, 2011, pp. 271-308.

국제정치에서 하드파워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임을 주장하는 것이다.¹²⁾ 예를 들어,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통해 탈냉전 시기 새롭게 등장한 비국가행위자와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¹³⁾ 따라서 국가들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혼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주목받는 것도 중국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강대국화하는 하드파워적 상황과 중국위협론의 대두라는 양면적인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소프트파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학계에서도 소프트파워를 소개하고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 나이(Nye)·왕지쓰(王緝思)는 소프트파워를 타국에 영향을 주고 자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흡입력(吸入力)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⁵⁾ 시후이둥(席會東)·정진바오(鄭金標)는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제도·문화·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흡입력(吸入力) 또는 구심력(向心力)으로 정의한다.¹⁶⁾ 이들이 정의한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Nye)의 주장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이한 주장이 존재한다. 전가림은 중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

12) Joseph S. Nye,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NY: Public Affairs, 2011.

13) 이병중,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변화 추이 연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제14권 제3호, 2010, pp. 150-184. 김우상, “대한민국의 증권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2013, pp. 331-350.

14) 席會東·鄭金標, “近代中国‘软实力’的消长及当代构建.” 『社会科学论坛』 第5期, 2007, pp. 95-101. 刘洪顺, “关于国家文化软实力的概念分析.” 『文化艺术研究』 第3期, 2008, pp. 80-87. Joseph S. Nye·王緝思, “中国软实力的兴起及其对美国的影响.” 『世界经济与政治』 第6期, 2009, pp. 6-12. 邓研华, “论文化软实力的社会政治功能.” 『运城学院学报』 第6期, 2013, pp. 14-17.

15) Nye·王緝思, 위의 논문, pp. 6-12.

16) 席會東·鄭金標, 위의 논문, pp. 95-101.

17) 전가림, 위의 논문, pp. 509-530.

시 수출환경 악화에도 인민폐(RMB)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동남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먼홍화(門洪華)는 이러한 관점이 오랫동안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영향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⁸⁾ 중국의 고대 사상에는 이미 소프트파워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노자(老子)는 ‘天下之至柔，馳騁於天下之至堅(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굳센 것을 뚫는다)’을 제시하였으며 유교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는 ‘以德服人(덕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종시킨다)’를 강조하였다. 시후이동(席會東)·정진바오(鄭金標)는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몇 천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쳤으며, ‘유교문화권’과 ‘한자문화권’, 그리고 ‘조공제도’를 그 예시로 들었다.¹⁹⁾ 유교문화권과 조공체제에 속한 국가들이 종주국인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와 정치상의 이익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개념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어떤 계기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소프트파워가 21세기 중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는 동의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 역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소프트파워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의 전통문화는 문화적 소프트파워이며, 오늘의 중국을 잘 다스려면 중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으며,²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¹⁾ 소프트파워 개념에 대한 논의와

18) 門洪華, “中国软实力评估报告(上).” 『国际观察』 第2期, 2007, pp. 15-26.

19) 席會東·鄭金標, 앞의 논문, pp. 95-101.

20) “시진핑 ‘역사는 최고의 스승, 교훈 삼아 통치해야.’” 『인민일보』 (한국어판 온라인) 2014년 10월 14일, <http://kr.people.com.cn/n/2014/1014/c203278-8794713.html>(검색일: 2017.05.14).

21) “一帶一路研究(趙廣成): ‘一帶一路’背景下的中国软实力透视” 『신화통신』 (온라인) 2017년 1월 13

함께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회주의 사상 및 제도, 다양한 문화자원, 국가 내부의 응집력 등을 강조한다.²²⁾ 이는 기본적으로 나이(Nye)가 제시한 소프트파워의 세 가지 자원인 국가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소프트파워 자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저우상쥘(周向軍)·가오치(高奇)는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주요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보고 있다.²³⁾ 마르크스 사상이 본질적으로 옳으며,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면서 그 사상의 생명력(生命力)과 창조력(創造力)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이다. 텐상보(田湘波)·양제(楊洁)는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집단지도체제가 작동되는 중국의 국내 정치 제도가 중국의 지정학적 환경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서구와 다른 국내 정치 제도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²⁴⁾ 나이(Nye)·왕지쓰(王緝思)는 중국 국내 정치 제도의 특징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제도가 갖는 우월성으로 보고 있다.²⁵⁾ 비슷한 맥락에서 뤼위팅(駱郁廷)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이를 오랜 기간 보존해 온 문화전파력(文化傳播力)도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²⁶⁾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논리적 근거를 결여한 채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

일, http://news.ts.cn/content/2017-01/13/content_12476582.htm(검색일: 2017.05.16).

22) Nye: 王緝思, 앞의 논문, pp. 6-12. 葛亚坤, “从软实力视角来理解社会主义核心价值观体系,” 『宜宾学院学报』 第1期, 2009, pp. 36-39. 駱郁廷, “综合国力竞争中的软实力建设,” 『武汉大学学报』 第6期, 2010, pp. 805-811. 刘序明, “试论我国国家软实力建设中的政党软实力建设,” 『石河子大学学报』 第1期, 2011, pp. 36-40. 田湘波·楊洁, “当代中国政治制度与文化软实力发展,” 『中国行政管理』 第8期, 2011, pp. 33-35. 郭继文, “从文化软实力视角论中国马克思主义大众化,” 『菏泽学院学报』 第4期, 2012, pp. 13-16. 周向軍·高奇, “社会主义核心价值体系是当代中国第一软实力,” 『理論學刊』 第5期, 2012, pp. 91-128.

23) 周向軍·高奇, 위의 논문, pp. 91-128.

24) 田湘波·楊洁, 앞의 논문, pp. 33-35.

25) Nye: 王緝思, 앞의 논문, pp. 6-12.

26) 駱郁廷, 앞의 논문, pp. 805-811.

과 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외적인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중국 내부의 주장과 함께 외부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객관적인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²⁷⁾ 먼저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분석한 길·후양(Gill and Huang)은 3,000년 이상 된 중국의 문화유산이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주변 국가에 오랜 기간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풍부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국내 정치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제도보다는 성공적으로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²⁸⁾ 또한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전 정부와 달리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다자기구 및 제도에 참여하는 등 변화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왕(Wang)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국내 정치제도가 오히려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로 보는 등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강조한다.²⁹⁾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에 유교 사상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첫 번째 형태의 자원은 중국의 ‘문화’이다.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는 고대 문명 국가 중의 하나로, 장구한 역사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내세울 만한 소프트파워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에 등록된 중국의 세계유산의 수는 2017년 기준, 총 50건으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중국의 다양한 문화·자연 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27) Bates Gill and Yanzhong Huang, “Sources and limits of Chinese ‘Soft Power.’” *Survival*, vol. 48, no. 2, 2006, pp. 17–36. Young Nam Cho and Jong Ho Jeong,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48, no. 3, 2008, pp. 453–472. Y. Wang, “Public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ese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2008, pp. 257–273. Weihong Zhang, “China’s Cultural Future: from Soft Power to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6, no. 4, 2010, pp. 383–402.

28) Gill and Huang, *Ibid.*, pp. 17–36.

29) Wang, *op. cit.*, pp. 257–273.

부터 6월 두 번째 토요일을 ‘문화·자연 유산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다³⁰⁾. 그러나 다양한 문화유산이 실질적인 소프트파워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자원은 전 세계인이 수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문화에 내재해 있는 유교 사상은 중국의 문화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매우 적합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³²⁾ 유교 사상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정신과 행동을 규제해 온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³³⁾ 중국인은 공자의 유교 사상을 중국의 주류 전통문화라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1990년대에 이르러 전통유학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화에 봉사할 수 있도록 유학부흥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³⁴⁾ 공자 사상의 핵심은 애민정신, 덕치주의, 교육평등 등으로 그 자체의 윤리성과 도덕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중국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며,³⁵⁾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명성과 사상적 지위가 입증되어,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취지와 잘 부합되는 요소라고 주장된다.³⁶⁾ 또한 유교 사상은 발원지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자체적인 전통을 형성하였으며, 관혼상제 등 동아시아 대중의 일상사 및 기업문화에도 깊숙이 뿌리 내린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중국이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경우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많은 문화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³⁷⁾

두 번째 자원은 국가의 ‘정치적 가치관’이다. 중국은 유교 사상을 중국의 중심 사상으로 보았고, 유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정치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다.³⁸⁾ 특히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제시된 중국의 3단계 국가발전목표

30) “중국 ‘문화·자연 유산의 날’ 제정…세계유산 적극 홍보”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 2017년 5월 15일, http://www.g-news.com/view.php?ud=201705151742553253d6eb469fd3_1(검색일: 2017.05.25).

31) 이흥규, 앞의 논문, pp. 271-308.

32) 채하연, 앞의 논문, pp. 321-349.

33) 김필년, 『공자의 그물』, 서울: 산마글, 2016.

34) 쉬강성, “중국 유학의 미래 발전에 관한 몇 가지의 사고” 김시업·마인섭(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p. 143-160.

35) 김필년, 앞의 책.

36) 채하연, 앞의 논문, pp. 321-349.

37) 이흥규, 앞의 논문, pp. 271-308.

는 유교의 이상 사상, 이념을 배경으로 한다. 덩샤오핑이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발전전략은 온포(溫飽)사회, 소강(小康)사회, 대동(大同)사회로 구분된다. 온포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사회로 이를 2000년까지 실현하고, 부유한 단계의 생활수준을 지칭하는 소강사회 건설을 공산당의 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 중국현대화를 실현해 모든 인민이 잘사는 이상적인 복지사회인 대동사회를 신 중국 성립의 100주년인 2050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이다.³⁹⁾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개혁 개방 정책을 연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공자가 중국 전통의 ‘실사구시’ 학풍을 견지한 이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이 ‘실사구시’ 학풍을 지향하여 중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와 다르게 이 ‘실사구시’ 사상을 배경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중국의 생산력을 성공적으로 향상한 ‘중국모델’⁴⁰⁾을 건설하였다.⁴¹⁾ 이러한 ‘중국모델’은 서구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였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잇따라 실패하면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써 부상하게 되었다.⁴²⁾

마지막 소프트파워 자원은 국가의 ‘대외 정책’이다. 중국은 대외관계에 있어 1990년대 보였던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21세기 들어 적극적인 방향을 보인다. 과거에는 서구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에

38) 김수중·남경희는 대동(大同)의 핵심 가치로 다음 3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公’의 이념으로 ‘고르게 나누어 사사로운 불평등이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同’의 개념이다. ‘同’은 공동체로서 친밀한 인간집단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親愛’의 가치로서 사랑을 의미한다. 김수중·남경희, “대동사회와 유토피아.” 『철학연구』 제38권, 1996, pp. 1-31.

39) 김진열, “중국 지도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유교 부활의 정치적 함의 고찰.” 『중국과 중국학』 제24권, 2015, pp. 143-171.

40) ‘중국모델’에 관한 논의는 사회주의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목하여 그 성장방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쟁점이 있다.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초기의 논의는 이와 같은 경제개혁을 가능하게 한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생활방식과 발전경험을 총괄한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제기되었다. 장윤미, “중국모델’에 관한 담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3권 제1호, 2011, pp. 75-116.

41) 이철승, 『유가사상과 중국식 사회주의 철학』, 서울: 삼산문화, 2002.

42) 이홍규, 앞의 논문, pp. 271-308.

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이 주변국들에게도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외교를 수행하면서 국제기구와 지역 다자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⁴³⁾ 이 외에도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동맹정책으로 인한 협력과 갈등의 반복이라는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2년 비동맹정책을 표방하면서 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주변국들에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⁴⁴⁾ 대외 정책에서 평화로운 발전과 함께 중국이 꿈꾸는 글로벌 전략은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이다. ‘조화세계(和平世界)’의 핵심 이념은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세계질서의 민주화, 다양성, 공존과 협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⁴⁵⁾ 조화세계 개념은 후진타오(胡錦濤)의 유엔연설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후진타오는 유엔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지속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면서 크게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공동안보의 실현, 공동번영, 관용 정신을 통한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 유엔 개혁을 언급하였다.⁴⁶⁾ 이 외에도 중국 지도부는 책임대국(責任大國),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발전(平和發展) 등 유교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구호들을 대외 전략에 사용함으로써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김진열은 시진핑(習進平)의 중국몽(中國夢) 역시 후진타오가 주창한 조화세계 건설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유교 사상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어 유교 사상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주장한다.⁴⁷⁾

43) 이태환, “동아시아 공동체와 중국.” 하영선(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8, pp. 121-164.

44)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4.

45) 이정남, “조화세계(和平世界)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中華秩序)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1호, 2010, pp. 37-60.

46) “努力建設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世界” 『인민일보』 (온라인) 2005년 9월 17일, <http://www.people.com.cn/GB/paper39/15728/1391113.html>(검색일: 2017.05.27.).

47) 김진열, 앞의 논문, pp. 143-171.

중국 유교 사상과 소프트파워와 관련하여 꾸안샤오리(吴晓丽)·푸린차이(傅琳凯)는 유교 사상이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 정치, 제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의식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⁴⁸⁾ 왕인찬(王银灿)·싱홍메이(邢红梅)는 철학적 접근을 통해 유교 사상의 개념이 중국 문화의 호소력, 응집력, 포용력 등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문화 소프트파워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⁴⁹⁾ 장치후이(章启辉)·펑치(冯祺)는 유교 사상 중에서도 실학에 초점을 맞춰 서구의 소프트파워 이론을 신자유주의적 학파로서 이해하고 있다.⁵⁰⁾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들은 유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유교 사상이 시대를 관통해오면서 중국인의 문화, 사상, 정치,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교 사상이 항상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며, 시대에 따라 그 정치적 위상과 평가를 달리하였다. 따라서 시대별로 유교 사상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를 통해 현재의 중국 정부가 공자와 유교 사상을 소프트파워 전략에 활용하는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중국의 유교 사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사상은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각 시대의 사회, 문화,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48) 吴晓丽·傅琳凯, “弘扬儒家中和思想之精华提升国家软实力.” 『道德与文明』 第6期, 2008, pp. 105-107.

49) 王银灿·邢红梅, “儒家优秀传统文化与中国文化软实力的提升.” 『理论研究』 第3期, 2016, pp. 57-62.

50) 章启辉·冯祺, “传统儒家实学与现代国家软实力理论.”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期, 2012, pp. 119-122. 이 외에도 다음의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郭卫华, “儒家道德哲学:提高“文化软实力”的伦理之径.” 『北京科技大学学报』 第1期, 2008, pp. 169-172. 王静玉, “关于儒家文化对提升我国文化软实力的思考.” 『商业文化』 第9期, 2012, pp. 269. 金颖·程永峰, “儒家文化视域下我国“软实力”建设思考.” 『内蒙古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12, pp. 289-291. 이 연구들은 유교 사상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유교 사상이 중국인, 중국 문화, 정치 및 제도에 두루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2장에서 중국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유교 사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유교 사상이 시기별로 국내외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그 변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 유교 사상과 소프트파워에 관한 면밀한 선행연구 검토에 대한 유익한 지적에 대하여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쌍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에 활용되는 유교 사상은 현대적 상황과 가치에 맞게 재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의 정치,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로 정치적 위상과 평가를 달리한 유교 사상의 모습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1절에서는 철학적·사상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유교 사상의 핵심개념을 정리하고, 현대에 이르러 유교 사상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춘추전국(春秋戰國) 시기 공자에 의해 태동한 유교 사상이 현재까지 시기별로 어떠한 평가를 받아왔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1. 철학적·사상적 접근

중국의 정치사상을 종합하면 첫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마오쩌둥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주도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득세하고 있는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 마지막으로 최근 갈수록 주목을 받는 유교 사상의 전통으로의 회귀이다.⁵¹⁾ 유교 사상은 춘추전국 시기 공자에 의해 태동한 이래로 현대까지 중국의 정치사상으로 작용하는 기능 외에도 중국인의 삶의 규범과 문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비록 원시적 유교 사상의 모습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조금씩 수정되었지만, 유교 사상의 핵심원리는 여전히 대중의 일상생활에서 가치,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유교 사상은 복잡한 현상으로 정신적 유교 사상, 정치화된 유교 사상, 민간의 유교 사상이라는 개념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⁵³⁾ 먼저 공자의 사상의 핵심은 ‘仁(인)’이다. 김필년은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서 ‘인’에 대한 말들을 종합한 결과 ‘인’은 인간이 남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가지는 측은지심이나 동정심 혹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주장한다.⁵⁴⁾ 공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

51) 유술선, 『중국 현대 신유학의 철학적 탐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52) 박창희,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 공자·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63권, 2015, pp. 36-57.

53) 유교 사상의 삼분법적 개념 설명은 다음을 참조, 유술선, 앞의 책, pp. 38-39.

적인 방법으로 ‘충(忠)’과 ‘서(恕)’를 제시하였는데, ‘충’은 옳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벗어나 양심을 발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논어·헌문편).⁵⁵⁾

子曰：“愛之，能勿勞乎？忠焉，能勿誨乎？”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는 남과 같은 마음이 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⁵⁶⁾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논어·위영공편).⁵⁷⁾

子曰：“己所不欲，勿施於人。”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다음으로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은 ‘禮(예)’로 이와 관련된 덕목은 ‘孝(효)’, ‘信(신)’ 등이다. 공자의 ‘예’는 사회질서 혹은 통치 수단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⁵⁸⁾ 공자는 주나라의 종법적 봉건제도를 규제하는 규범인 주례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질서로 보았다(논어·위정편).⁵⁹⁾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치적인 수단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형벌로써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법의 울가미를 벗어날 수는 있어도 부끄러움을

54) 김필년, 앞의 책.

55) 공자 지음, 김동휘 옮김, 『논어』, 서울: 신원문화사, 2010.

56) 김필년, 앞의 책.

57) 공자 지음, 김동휘 옮김, 앞의 책.

58) 송영배, 『고대중국 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59) 공자 지음, 김동휘 옮김, 앞의 책.

느낄 수 없으나, 덕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예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반듯해진다.”

다만 주나라의 ‘예’는 신분, 상하, 남녀의 차별을 전제로 하지만 공자는 자애를 바탕으로 한 ‘예’는 억압과 차별의 도구가 아닌 전체 사회질서를 인간적으로 통합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여겼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한다면 상하질서의 구분도 문제될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⁶⁰⁾ 이를 종합하면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덕치를 실현하고, 군자로부터 백성들에 대한 화합을 이뤄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 유교 사상은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이 진행되었다.⁶¹⁾ 현대 중국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교 사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보다는 집단(또는 공동체)을 강조한다. 유교 사상에서는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을 통해 개인의 사욕을 물리치고, 공공선을 실천하는데 큰 가치를 두었다. 특히 유교 사상은 지도층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수양을 요구하였는데, 맹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대인(大人)과 육체노동을 하는 소인(小人)을 구분하여, 대인은 소인의 생산 활동이 없는 생존할 수 없으며 소인은 그들을 지도하는 대인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논리 하에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⁶²⁾ 국민호는 이와 같은 사상 속에서 중국인의 중국 지도부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⁶³⁾ 바로 여기서 중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위와 정당성이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자의 유교 사상은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기 말의 상황을 배경으로 태동하여 세계

60) 김필년, 앞의 책.

61) 쉬강성, 앞의 논문, pp. 143-160.

62) 송영배, 앞의 책.

63) 국민호, “중국의 정치문화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적 전통.”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협동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6, pp. 219-234.

의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定名(이름을 바로잡는 일)’을 주장하였다.⁶⁴⁾ ‘정명’의 ‘君君, 臣臣, 父父, 子子(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답다)’는 원래 쌍방향의 관계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의 갈등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지만,⁶⁵⁾ 정치화된 유교 사상이 건립한 한대(漢代) 이후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일방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⁶⁶⁾ 직책에 따른 질서를 중시한 공자의 종법 사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국가와 강한 가부장적 가족주의 형태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자는 통일된 중국, 통일된 세계를 바람직한 상태로 보았다.⁶⁷⁾ 이에 한나라 초기 사상가인 동중서(董仲舒)는 유교 사상을 ‘공식적 국가이념’으로 확립하여 한(漢) 제국의 영토적·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⁶⁸⁾ 공자는 주(周) 왕조 건국자의 아우인 주공(周公)의 ‘천명사상(天命思想)’을 본받고자 하였는데, ‘천명사상’의 핵심내용은 하늘이 현명하고 덕이 있는 통치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⁶⁹⁾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천자(天子)는 천하(天下)의 최고 주권자로서 세상을 모두 차지하고 다스리는 임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 천하는 모두 천자의 영토이며, 모든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현재 이전까지 중국에는 ‘분할하여 통치’하거나 ‘연합하여 통치’하는 유의 명사가 존재하지 않았다.⁷⁰⁾ 이러한 ‘통일’에 대한 관념은 오늘날의 중국 지도부에게도 영토보존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⁷¹⁾ 이와 동시에 유교 사상은 중국의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조공관계’이다. 중국은 한대(漢代)부터 청대(清代)에 이르기까

64) 박창희, 앞의 논문, pp. 36-57.

65) 박창희, 위의 논문, pp. 36-57.

66) 유술선, 앞의 책.

67) 김필년, 앞의 책.

68) 김영문, “중국의 정치문화와 중국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2008, pp. 221-252. 송영배, 앞의 책.

69) 김필년, 앞의 책.

70) 국민호, 앞의 논문, pp. 219-234.

71) 김영문, 앞의 논문, pp. 221-252.

지 지속적으로 조공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조공관계는 유교 사상의 원리를 국가관계에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⁷²⁾ 즉 중국의 유교적 세계관과 중화사상에 바탕을 둔 국가 간의 관계 및 경제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⁷³⁾ 유교 사상에 의하면 군주와 백성들의 수직적인 관계는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 중국이 인식한 국제관계는 곧 중국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인 구도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호혜적 관계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⁷⁴⁾ 중국은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에서도 중국과 다른 나라를 대등하게 인정하지 않았다.⁷⁵⁾ 따라서 중화라는 천하관 속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은 조공과 책봉관계를 통해 주변국들은 종주국인 중국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해 조공을 보내고, 중국은 속국의 내정이나 외교에 일정한 간섭을 하였다.⁷⁶⁾

2. 역사적·사회적 접근

박창희는 중국의 역사를 국가 간의 분쟁과 통일의 역사로 평가하고 있다.⁷⁷⁾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바로 이러한 약육강식의 분열된 상황이었다. 새로이 철제 농기구의 사용, 관개수리 시설 등의 도입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증가면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유재산제가 퍼짐에 따라 이전의 농노적 신분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층이 대두되면서 종래의 상하귀천의 인간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⁷⁸⁾ 국가 차원에서는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위에 위치한 제후국들은 상호협력보다는 전쟁을 통한 국력 확장에 몰두하였으며 그 결과, 초기의 천자국인 주나라와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후국 간의

72) 박창희, 앞의 논문, pp. 36-57.

73) 김필년, 앞의 책.

74) 박창희, 앞의 논문, pp. 36-57.

75) 김필년, 앞의 책.

76) 이영옥, “조선, 청조의 조공관계와 외교질서: 『중국역대조공제도연구』의 비판적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29권, 2011, pp. 321-351.

77) 박창희, 앞의 논문, pp. 36-57.

78) 송영배, 앞의 책.

종법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쟁과 갈등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각 나라는 왜 싸우는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통일국가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이 공자가 고민한 주된 문제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자가 제시한 방법은 주나라의 제도, 규범을 유지하면서 당시의 혼란스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법가는 오히려 새롭고 현실적인 사상 및 제도를 통해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⁷⁹⁾ 법가의 정책을 채택한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공자의 원시 유교 사상은 크게 쇠퇴하였으며, 특히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를 거치면서 거의 소멸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진나라는 법가의 가혹한 통치로 곧 민심을 잃었고, 첫 번째 황제가 죽고 난 다음 바로 멸망하였다. 진나라를 이은 한(漢)나라는 법가적인 제도와 정책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유교의 도덕적, 인간중심적 이념 위에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한나라 초기 사상가인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유교 사상을 ‘공식적 국가이념’으로 확립하였다.⁸⁰⁾ 김필년은 당시 공자의 사상이 현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 사상이 포함하고 있는 애민정신, 군주에 대한 충성,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등은 새로운 제국의 통치이념으로써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⁸¹⁾ 한나라 말엽 전래한 불교와 노장사상에 바탕을 둔 도학이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들어 크게 번성하면서 유교 사상은 상대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였으나, 심성수양에 더욱 중점을 두는 형태의 송(宋)나라의 주자학, 명(明)나라의 양명학으로 발전하였으며, 서구 열강이 본격적으로 침입하게 된 아편전쟁(1840) 전까지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⁸²⁾

한나라 이래로 정치화된 유교 사상이 남긴 ‘부드러운 권위체제’는 중국이 과거 오랫동안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지만, 중국의 현대화 즉 자본주의 탄생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⁸³⁾ 공자는 윤리와 인간적

79) 김필년, 앞의 책.

80) 송영배, 앞의 책, 김필년, 위의 책.

81) 김필년, 위의 책.

82) 유술선, 앞의 책, 김영문, 앞의 논문, pp. 179-208.

가치를 경제적 이익 및 발전보다 강조했다기 때문이다.⁸⁴⁾ 이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봉건사회의 통치이념이자 전통 사상인 유교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과학화·산업화·상업화를 추진하는 현대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사회구조 측면의 변화가 불가피했으며, 서양 주도의 현대화 과정에서 유교 사상을 포함한 중국의 전통이 파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⁸⁵⁾ 대표적으로 과학과 민주를 제창한 5·4 신문화운동(1919)은 공자의 사상을 구문화의 대표 격으로서 ‘倒孔子店(공자의 학설을 타도하자)’를 강조하였으며,⁸⁶⁾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 공산당은 반전통적, 미래지향적인 정치 강령을 내세움으로써 오랜 세월 중국 땅에 영향을 미친 유교 사상의 세력을 약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오쩌둥의 주도로 전개된 문화대혁명 시기에 유교 사상의 세력은 현격히 약화하였다.⁸⁷⁾ 그러나 덩샤오핑을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유교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공자의 유교 사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⁸⁸⁾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교 사상의 기본정신이 시장 경제 및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같은 현대 사회의 가치와 발전에 어긋나지 않으며, 유교 사상의 윤리적 규범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⁹⁾ 유술선은 중국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유교 사상은 ‘제도화된 유학’ 형태가 아닌 정신적 유교 사상으로 대체되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이미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교 사상의 윤리규범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⁰⁾ 채하연은 정치적 측면에서 마오쩌둥 시기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변화

83) 유술선, 위의 책.

84) 김필년, 앞의 책.

85) 유술선, 앞의 책.

86) 쉬강성, 앞의 논문, pp. 143-160.

87) 김필년, 앞의 책.

88) 채하연, 앞의 논문, pp. 321-349.

89) 쿵평정, “생활유학의 재건” 김시엽·마인섭(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p. 183-206.

90) 유술선, 앞의 책.

된 상황에서 지도이념으로서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공자의 유교 사상이 대안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⁹¹⁾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유교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인정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공맹(孔孟)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해석과 개조를 통해 현대의 중국이 처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으며,⁹²⁾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공자콘텐츠와 유교 문화를 중국의 소프트파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대 중국 지도부의 유교 사상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정책은 중국의 국내·외의 정치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유교 사상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국가 내부의 소득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다양한 소수민족의 존재는 중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⁹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유교 사상의 도덕적 규범을 사회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자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유교 사상을 이론적 토대로써 활용하여 다민족인 중국인들을 중화민족으로 묶고자 하였다.⁹⁴⁾ 또한 중국 지도부는 유교 사상을 사회도덕의 부패 현상을 치료할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서구 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도덕적 관념이 무너지고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회의 도덕적 붕괴 현상에 대해 일련의 지식인들은 유교 사상의 도덕적 규범의 발휘를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움직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마침내 정부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⁹⁵⁾ 국외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문화대국화'와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자콘텐츠와 유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

91) 채하연, 앞의 논문, pp. 321-349.

92) 유술선, 앞의 책.

93) 채하연, 앞의 논문, pp. 321-349.

94) 김진열, 앞의 논문, pp. 143-171.

95) 쉬강성, 앞의 논문, pp. 143-160.

다.⁹⁶⁾ 중국은 과거에 비해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으며 국제적 위상 역시 높아졌지만, 여전히 중국의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것을 전파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⁹⁷⁾ 중국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자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고자 하였다. 공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공자의 유교 사상은 애민정신, 덕치주의, 교육평등 등의 내용으로 윤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소프트파워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문화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⁹⁸⁾

공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⁹⁹⁾은 중국 관광부처의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어 왔는데 관광프로그램, 공자문화제, 공자탄생 기념행사 등과 같은 행사들 외에도 공자의 유교 사상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학계에서는 유학관련 출판운동, 학술회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⁰⁰⁾ 김진열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공자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모습을 연출하면서 유교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적 매력을 갖춘 국가의 이미지를 얻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¹⁾ 또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자를 통한 평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부각해 21세기 중국의 대외 전략목표인 ‘책임대국으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¹⁰²⁾ 중국 지도부는 유교 사상을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양안통일에 영향을 줄 수 있

96) 김진열, 앞의 논문, pp. 143-171.

97) 이보고, “중국 공공외교와 공자아카데미.” 『중국어문학논집』 제88권, 2014, pp. 433-456.

98) 김필년, 앞의 책.

99) 공자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일수 최형룡, 앞의 논문, pp. 30-31.

100) 김일수 최형룡, 위의 논문, pp. 25-44.

101) 김진열, 앞의 논문, pp. 143-171.

102) 이동률, “책임 대국 적신표, 새로운 역할 모색하는 중국.” 『월간말』 제251권, 2007, pp. 156-159. 이보고, 앞의 논문, pp. 433-456.

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중국에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⁰³⁾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티베트·신장위구르의 분리운동에 대한 무력진압 등의 모습이 중국이 전파하는 인간중심의 윤리성을 갖춘 유교 사상과 괴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¹⁰⁴⁾ 더 나아가 유교 사상에 내재한 민족주의 혹은 중화주의는 중국 소프트파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¹⁰⁵⁾ 민족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정책은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에서 유교 사상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족이기주의, 종법질서, 국수주의 등과 같이 현재의 보편적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요소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진실성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V. 한국의 유교 사상과 소프트파워 전략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중국과 오랜 세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에 있어 중국의 대외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무역구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정책 또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중국은 소프트파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원의 첫 번째 대상지로 한국을 선택한 바가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소프트파워 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고찰하

103) 김진열, 앞의 논문, pp. 143-171.

104) 이흥규, 앞의 논문, pp. 271-308.

105) 이종철, 앞의 논문, pp. 121-148.

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1세기 현재 ODA 공여국으로 활동할 만큼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중견국의 조건을 첫째, 지역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보유하고, 지정학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둘째,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 정의한다면¹⁰⁶⁾ 대한민국은 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이 늘 상존하였으며, 최근에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위협 등으로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중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프트파워는 물리적 힘만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의 매력 또한 중요한 국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견국의 국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¹⁰⁷⁾ 그동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한류열풍’의 전 세계로의 확산과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국가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국은 소프트파워 외교, 문화외교를 핵심 외교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병중은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뉴욕 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갈수록 하드파워적 주제보다는 문화, 예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와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기사의 논조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¹⁰⁸⁾

소프트파워가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국이 자국의 문화나 가치를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자국의 소프트파워

106)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3권, 2013, pp. 1-20.

107) 진행남, 위의 논문, pp. 1-20.

108) 이병중, 위의 논문, pp. 150-184.

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문화 외교를 포함하는 개념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비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 이전의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관료가 아닌 비정부기구나 일반 대중이 주체가 되어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통해 상대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매료시켜 자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지하는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⁰⁹⁾ 한국은 한류를 공공외교와 접목하여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써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反)사드배치의 일환으로 한류 드라마의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공연 취소, 한국관광의 전면 금지 등의 압박이 가해지면서¹¹⁰⁾ 문화외교 중심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있어 보다 심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프트파워의 자원은 비물질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김영문은 이를 정신문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대별로 패권국에 위치한 국가들은 건강한 정신문명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¹¹¹⁾ 그에 따르면 17세기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들보다 선진적인 경제 관련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 종교를 포용하는 관용정신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대영제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진보된 과학정신, 다른 인종과 종교에 대한 관용정신, 민주적 가치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20세기와 현재까지 미국은 첨단과학 기술과 청교도 정신, 다양한 재능을 유인할 수 있는 개방과 관용정신, 민주적 가치 등의 요소들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¹²⁾ 특히 정신적 가치와 관련된 자원은 대내적으로 한 국가의 민족정신을 단결시키는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상대국으로의 전파를 통해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외교를

109) 김우상, 앞의 논문, pp. 331-350.

110) “중국 반(反)사드 협박, 덩샤오핑 개혁 개방 물거품 되나.” 중앙일보(온라인) 2017년 3월 6일, <http://news.joins.com/article/21339604>(검색일: 2017.06.10.).

111) 김영문, “이명박 정부와 시대정신: 소프트 파워 시각에서 본 초강대국 건설.” 『대한정치학회보』 제 16권 제3호, 2009, pp. 179-208.

112) 김영문, 위의 논문, pp. 179-208.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적 가치가 반영된 소프트파워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기제는 한국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³⁾ 홍익인간 사상은 한민족의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이러한 평화 사상을 기반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개인주의와 같이 서구 중심 사상에서 배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문화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홍익인간 사상이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에 갖는 효용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유교 사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유교는 종교, 정치사상, 일상생활 규범 등의 다양한 틀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교 사상을 중국만의 사상으로 한정 짓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 사상은 춘추전국 시기 공자에 의해 창시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에 전파된 이래로, 유교 사상을 수용한 국가들은 자체적인 학문적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국의 특성이 반영된 유교 사상을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유교는 전통사회의 지배이념으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와 관련된 이전의 경서들을 해석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만의 독창적인 이론으로 가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¹⁴⁾ 한국 유교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현대화 과정에서 방해요인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애민정신과 백성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유교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 복지 제도를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¹⁵⁾ 문응상·박병진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 정신이 유교규범의 ‘근면성’과 ‘교육열’ 그리고

113) 조기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한국: 가능성과 과제.” 『평화학논총』 제6권 제1호, 2016, pp. 85-104.

114) 홍윤기, “역사자산으로서 한국 유교 재해석의 잠재력.” 『철학사상』 제12권, 2001, pp. 3-34.

115) 양정하,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2015, pp. 43-71.

‘효’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¹¹⁶⁾ 또한 유교 사상은 한국 외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가족붕괴로 인해 발생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유교 사상의 가족 내에서의 ‘효’의 정신, 직장 생활에서는 경쟁보다는 구성원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¹¹⁷⁾ 이처럼 유교 사상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현대적 효용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유교 사상을 중국의 사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으며, 유교 사상에 내재한 가부장제와 종벌질서가 오히려 소프트파워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만의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파워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적인 자원 외에도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 비물질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탈냉전 시기 국제정치에서 하드파워와 함께 중요한 국가 권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파워를 중국의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급격한 경제적 성장에 따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중국의 하드파워를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대두된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소프트파워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즉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를 대체하는 개념

116) 문응상·박병진, “‘孝’를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와 한국의 기업가 정신”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pp. 210-230.

117) 홍윤기, 앞의 논문, pp. 3-34.

이 아니라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주로 비물질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문화, 제도, 사상 등이 상대국에 영향을 끼쳐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행위를 끌어오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소프트파워 자원에는 그 국가의 가치와 믿음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교 사상은 중국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 등 소프트파워 자원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두루 활용하였으며, 사상의 쌍방향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유교 사상이 지닌 철학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대별로 나타난 유교 사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 속에서 공자로 대변되는 유교 사상은 중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에서 모두 활용되었는데 시기별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평가가 상이하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의 이념 등을 규정한 당내 헌법인 현행 당장(黨章)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马克思列宁主义)’, ‘마오쩌둥 사상(毛泽东思想)’, ‘덩샤오핑 이론(邓小平理论)’을 3개 대표사상으로 채택하며 유교 사상을 당 지도이념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교 사상을 포함한 전통 사상을 발전·확대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11월 14일 통과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는 교육, 과학과 더불어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과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으며,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以德治国相)’라는 표현과 같이 유교 사상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중국 지도부의 가치체계에 유교 사상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⁸⁾ 이러한 유교 사상은 특히 현대 사

118) “中国共产党章程(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 2012年11月14日通过)” 「共产党员网」(온라인) 2012년 11월 14일, <http://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검색일: 2017.08.

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새로이 해석하여 현대의 중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국내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야기된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유교 사상의 조화사상과 통일개념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도덕의 부패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교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외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문화력을 높이고 공자를 통한 평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자콘텐츠와 유교 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소프트파워를 통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대만문제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최근 중국이 사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류를 제한하면서(한한령, 限韓令)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유교를 소프트파워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본 결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유교 사상이 관습적으로 남아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서구 중심 사상에서 배태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유교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유교 사상을 한국의 전통 사상으로 볼 수 없으며 유교 사상에 내재된 한계가 오히려 소프트파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국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자국만의 소프트파워 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유교 사상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물론 공자로 대변되는 중국 유교 사상이 중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에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중국 공산당 지도이념과의 관계, 중국 지도부 국정운영과의 연관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익한 지적과 논평에 대하여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공자 지음, 김동휘 옮김, 『논어』, 서울: 신원문화사, 2010.
- 국민호, “중국의 정치문화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적 전통.”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합동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6.
- 김수중·남경희, “대동사회와 유토피아.” 『철학연구』 제38권, 1996.
- 김영문, “중국의 정치문화와 중국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2008, pp. 221-252.
- 김영문, “이명박 정부와 시대정신: 소프트 파워 시각에서 본 초강대국 건설.”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9.
-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2013.
- 김유리, “미국 내 중국연구의 변화를 통해 본 중국위협론 논의의 재고찰.” 『동아연구』 제63권, 2012, pp. 49-82.
- 김일수·최형룡,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자학원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제73권, 2014.
- 김진열, “중국 지도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유교 부활의 정치적 함의 고찰.” 『중국과 중국학』 제24권, 2015.
- 김필년, 『공자의 그물』, 서울: 산과글, 2016.
- 문응상·박병진, “孝를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와 한국의 기업가 정신.”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 박창희, “중국의 유교적 전략문화: 공자 · 맹자 사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63권, 2015.
- 송영배, 『고대중국 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쉬강성, “중국 유학의 미래 발전에 관한 몇 가지의 사고.” 김시압·마인섭(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양정하,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2015.
- 유술선, 『중국 현대 신유학의 철학적 탐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 이기현·김애경·이영학,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동률, “책임 대국 적신회, 새로운 역할 모색하는 중국.” 『일간말』 제251권, 2007.
- 이병종, “뉴욕타임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변화 추이 연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제14권 제3호, 2010.
- 이보고, “중국 공공외교와 공자아카데미.” 『중국어문학논집』 제88권, 2014.
- 이상택·윤성석, “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의 성립 조건과 군사적 함의.”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 이영옥, “조선, 청조의 조공관계와 외교질서: 『중국역대조공제도연구』의 비판적 분석.” 『인문

- 과학연구』 제29권, 2011.
- 이정남, “조화세계(和平世界)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中華秩序)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권 제1호, 2010.
- 이종철,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에 대한 -考察- 원조외교와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논총』 제4권 제2호, 2011.
- 이철승, 『유가사상과 중국식 사회주의 철학』, 서울: 심산문화, 2002.
- 이태환, 『동아시아 공동체와 중국』 하영선(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8.
- 이흥규, “중국의 소프트 파워 평가에 대한 시론적 연구.” 『중국학연구』 제57권, 2011.
- 장윤미, “중국모델’에 관한 담론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3권 제1호, 2011.
- 전가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발전 전략과 그 영향력: 공자학원과 방송 미디어매체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0권, 2010.
- 조기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한국: 가능성과 과제.” 『평화학논총』 제6권 제1호, 2016.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3권, 2013.
- 채하연, “중국의 소프트파워로서 공자콘텐츠의 전개현황 및 의의.” 『유교 사상연구』 제33권, 2008.
- 최은진,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중국학연구』 제72권, 2015.
- 쿵평청, 『생활유학의 재건』 김시업·마인섭(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홍윤기, “역사자산으로서 한국 유교 재해석의 잠재력 -전통화- 탈전통화의 복잡교착 관점에서 본 한 고찰.” 『철학사상』 제12권, 2001.

〈국외문헌〉

- 郭卫华, “儒家道德哲学:提高“文化软实力”的伦理之径.” 『北京科技大学学报』 第1期, 2008.
- 葛亚坤, “从软实力视角来理解社会主义核心价值观体系.” 『宜宾学院学报』 第1期, 2009.
- 郭继文, “从文化软实力视角论中国马克思主义大众化.” 『菏泽学院学报』 第4期, 2012.
- 金颖·程永峰, “儒家文化视域下我国“软实力”建设思考.” 『内蒙古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12.
- 邓研华, “论文化软实力的社会政治功能.” 『运城学院学报』 第6期, 2013.
- 骆郁廷, “综合国力竞争中的软实力建设.” 『武汉大学学报』 第6期, 2010.
- 刘序明, “试论我国国家软实力建设中的政党软实力建设.” 『石河子大学学报』 第1期, 2011.
- 刘洪顺, “关于国家文化软实力的概念分析.” 『文化艺术研究』 第3期, 2008.
- 門洪華, “中国软实力评估报告(上).” 『国际观察』 第2期, 2007.

- 席會東·鄭金標, “近代中国‘软实力’的消长及当代构建.” 『社会科学论坛』 第5期, 2007.
- 关晓丽·傅琳凯, “弘扬儒家中和思想之精华提升国家软实力.” 『道德与文明』 第6期, 2008.
- 王银灿·邢红梅, “儒家优秀传统文化与中国文化软实力的提升.” 『理论研究』 第3期, 2016.
- 王静玉, “关于儒家文化对提升我国文化软实力的思考.” 『商业文化』 第9期, 2012.
- 章后辉·冯琪, “传统儒家实学与现代国家软实力理论.”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期, 2012.
- 田湘波·楊洁, “当代中国政治制度与文化软实力发展.” 『中国行政管理』 第8期, 2011.
- 周向軍·高奇, “社會主義核心價值體系是當代中國第一软实力.” 『理論學刊』 第5期, 2012.
- Cho, Young Nam and Jong Ho Jeong, “China’s Soft Power: Discussions, Resources, and Prospects.” *Asian Survey*, vol. 48, no. 3, 2008.
- Gill, Bates and Yanzhong Huang, “Sources and Limits of Chinese ‘Soft Power.’” *Survival*, vol. 48, no. 2, 2006.
- Hartig, Falk, “Confucius Institutes and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17, no. 1, 2012.
- Li, Sharon X., “China’s International Education Initiatives and View.” *Frontiers of Education in China*, vol. 7, no. 1, 2012.
-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he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NY: Public Affairs, 2004.
- Nye, Joseph S.,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NY: Public Affairs, 2011.
- Starr, Don,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Europe: the Confucius Institute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44, no. 1, 2009.
- Wang, Y., “Public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ese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6, no. 1, 2008.
- Zhang, Weihong, “China’s Cultural Future: from Soft Power to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6, no. 4, 2010.
- Nye, Joseph S.·王緝思, “中国软实力的兴起及其对美国的影响.” 『世界经济与政治』 第6期, 2009, pp. 6-12.

<기타자료>

- “시진핑 ‘역사는 최고의 스승, 교훈 삼아 통치해야.’” 『인민일보』 (한국어판 온라인) 2014년 10월 14일, <http://kr.people.com.cn/n/2014/1014/c203278-8794713.html>(검색일: 2017. 05.14.).
- “시진핑 유학론 ‘나라 크다한들 다툼 갖으면 망한다.’” 『인민일보』 (한국어판 온라인) 2014년 9월 25일, <http://kr.people.com.cn/n/2014/0925/c203278-8787803.html>(검색일: 2017. 05.14.).

“중국 ‘문화·자연 유산의 날’ 제정…세계유산 적극 홍보.”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 2017년 5월 15일,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5151742553253d6eb469fd3_1(검색일: 2017.05.25.).

“중국 반(反)사드 협박, 덩샤오핑 개혁 개방 물거품 되나.” 「중앙일보」(온라인) 2017년 3월 6일, <http://news.joins.com/article/21339604>(검색일: 2017.06.10.).

“努力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 「인민일보」(온라인) 2005년 9월 17일, <http://www.people.com.cn/GB/paper39/15728/1391113.html>(검색일: 2017.05.27.).

“一带一路研究(赵广成): ‘一带一路’背景下的中国软实力透视.” 「신화통신」(온라인) 2017년 1월 13일, http://news.ts.cn/content/2017-01/13/content_12476582.htm(검색일: 2017.05.16.).

“中国共产党章程(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部分修改, 2012年11月14日通过).” 「共产党员网」(온라인) 2012년 11월 14일, <http://www.12371.cn/special/zggcdzc/zggcdzcqw/>(검색일: 2017.08.21.).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Hanban),

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검색일: 2017.06.25.).

〈부록 1〉 전 세계 공자학원 개설 현황 (2017년 6월 현재)

지역	국가	공자학원
아시아	32개국	115개소
아프리카	33개국	48개소
유럽	41개국	170개소
미주	21개국	161개소
오세아니아	3개국	18개소
총	512개국	1,073개소

출처: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부록 2〉 국가별 공자학원 개설 현황 (2017년 6월 현재)

지역	국가(개소)
아시아(32개국)	아프가니스탄(1), 아르메니아(1), 파키스탄(4), 필리핀(4), 한국(23), 카자흐스탄(5), 키르기스스탄(4), 레바논(1), 말레이시아(2), 몽골(3), 방글라데시(2), 네팔(1), 일본(14), 스리랑카(2), 태국(15), 터키(4), 우즈베키스탄(2), 타지키스탄(2), 싱가포르(1), 이란(2), 인도(2), 인도네시아(6), 이스라엘(2), 요르단(2), 홍콩(1), 캄보디아(1), 라오스(1), 아랍에미리트(2), 아제르바이잔(2), 바레인(1), 그루지야(1), 베트남(1)
아프리카(33개국)	이집트(2), 보츠와나(1), 짐바브웨(1), 카메룬(1), 케냐(4), 라이베리아(1), 르완다(1), 마다가스카르(2), 남아프리카공화국(5), 나이지리아(2), 수단(1), 모로코(3), 토고(1), 베냉(1), 에티오피아(2), 부룬디(1), 에리트레아(1), 콩고(1), 가나(2), 말라위(1), 모잠비크(1), 나미비아(1), 시에라리온(1), 세네갈(1), 탄자니아(2), 잠비아(1), 세이셸(1), 앙골라(1), 우간다(1), 적도기니(1), 카보베르데(1), 코트디부아르(1), 모리셔스(1)
유럽(41개국)	에스토니아(1), 알바니아(1), 아일랜드(2), 오스트리아(2), 벨로루시(3), 불가리아(2), 벨기에(6), 아이슬란드(1), 폴란드(5), 덴마크(3), 독일(19), 러시아(17), 프랑스(17), 핀란드(1), 네덜란드(2), 체코(1), 루마니아(4), 노르웨이(1), 포르투갈(4), 스웨덴(1), 세르비아(2), 슬로바키아(2), 우크라이나(5), 스페인(8), 그리스(1), 헝가리(4), 이탈리아(12), 영국(29), 몰타(1), 몰도바(1), 슬로베니아(1), 크로아티아(1), 라트비아(1), 리투아니아(1), 마케도니아(1), 스위스(2), 키프로스(1), 몬테네그로(1), 산마리노(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 룩셈부르크(1)
미주(21개국)	미국(110), 캐나다(12), 멕시코(5), 페루(4), 콜롬비아(3), 쿠바(1), 칠레(2), 브라질(10), 아르헨티나(2), 코스타리카(1), 자메이카(1), 바하마(1), 볼리비아(1), 에콰도르(1), 트리니다드토바고(1), 가이아나(1), 바베이도

	스(1), 베네수엘라(1), 수리남(1), 파나마(1), 우루과이(1)
오세아니아(3개국)	오스트레일리아(14), 뉴질랜드(3), 피지(1)

출처: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부록 3〉 한국 내 공자학원 개설 현황 (2017년 6월 현재)

구분	한국 공자아카데미	중국 협력대학
1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산둥사범대학
2	경희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동제대학
3	제주한라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남개대학
4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대련외국어대학
5	서울공자아카데미	중국교육부(汉办)
6	우송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사천대학
7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산둥대학
8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동북사범대학
9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산둥대학
10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호남대학
11	충북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연변대학
12	강원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북화대학
13	계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북경어언대학
14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청도대학
15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천진외국어대학
16	대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하얼빈사범대학
17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북경외국어대학
18	안동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공부사범대학
19	연세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사천사범대학
20	원광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호남중의약대학 호남사범대학
21	세명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강서중의약대학
22	한양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길림대학
23	제주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대외경제무역대학

출처: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Confucius Institute Headquarters)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Abstract

A Study on Chinese Confucian Thought
: Focusing on Chinese Soft Power Strategies

Park, Myung-A(Myongji University)
Kim, Hyung-Min(Myongji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Chinese Confucian thought, focusing on its soft power strategies. It posits that, to accurately understand Chines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we will have to carefully examine Confucian thought and its influence on Chinese history. Thoroughly understanding Chinese culture, political philosophies, and foreign policies based on Confucian ideas throughout its history helps us comprehend how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have been made and adjusted in China. Domestically, decision-makers in China try to strengthen its political cohesion and stabilize its internal order based on Confucian ideals of harmony and stability. Internationally, arguing from the Confucian position of harmony and decency, Chinese policymakers have tried to dispel worries of the China threat and argue that Chinese foreign policies are inclusive not exclusive in nature with other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Key Words: Confucian thought, Confucius, philosophical approach, Historical approach, Soft power

투고일 : 2017년 7월 7일 • 심사일 : 2017년 7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25일